30만 원 2TB USB가 3만 원?… "혹시"하고 샀다가 "역시"

수년 전부터 판치던 사기 아직도… 피해자들 줄이어
中 플랫폼 그럴싸한 눈속임에 속아… 뒤늦게 후회 막심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매한 해당 USB 메모리(작은 사진). 스카이데일리

USB 드라이브를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불량품을 보내는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사기 수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관련 후기도 많지만 여전히 싼 가격을 무기로 피해자를 찾고 있다.

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이씨는 쿠팡을 통해 설 연휴 전 USB 3.0 2TB 플래시 드라이브 USB 디스크를 약 3만 원의 가격에 구매했다. 이씨는 일반적인 USB 3.0 2TB 메모리는 30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고 본지에 말했다.

그러나 구매 후 USB 메모리에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속도가 지나치게 느렸고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0mb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이에 해당 USB 메모리를 확인한 결과 USB 메모리의 핀이 4핀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USB 3.0은 9핀이고 4핀은 USB 2.0이다. USB 2.0은 USB 3.0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비슷한 상품 구매 사례를 찾아본 결과 저렴한 가격의 USB 3.0 2TB 메모리를 구매했지만 USB 2.0 제품이라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심지어는 몇 번 쓰자마자 망가졌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씨는 "가격이 워낙 싸서 혹시 사기가 아닌가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다"며 "디자인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써 보기 전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에 2TB USB를 검색하면 비슷한 사기 사례들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USB 2.0 제품을 3.0으로 속여 판매하고 구매자를 속이기 위해 USB 3.0의 특징인 파란색 플라스틱 커넥터를 덧씌우거나 몇 번 사용하면 망가지는 등 비슷한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USB 용량 또한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는 2TB로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용량이 더 작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구매자가 낮은 속도에 질려 사용을 포기하거나 2TB 용량의 자료를 넣기 전에 USB가 망가지는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튜브 영상들이나 후기는 1년 전 또는 2년 전에 이미 올라와 있지만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사기 사례를 일일이 찾아보고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USB 판매 사기는 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USB 3.0 2TB를 검색하면 몇천원 정도에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쿠팡에서도 해당 USB가 3만 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3만 원 이하 가격대도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지만 비슷한 사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씨는 "주로 중국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방심했던 것 같다"며 "혹시나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기당하지 않을까 해서 주변에 최대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1심 무죄 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회계 부정 재판 2심 결과가 3일 나온다. 6개월 전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1심 때 인정되지 않은 증거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2024년 2월 5일 1심에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의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한편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하에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2024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단독 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시중 가격보다 40% 저렴… 대형마트 '초저가 경쟁'

노브랜드 국산 콩나물 1280원·콩두부 3480원… "제조비용 절감"
홈플러스도 자체 브랜드 콩나물 연중 1000원 등 물가 안정 총력



2일 유통업계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이마트는 초저가 가성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를 통해 국산 콩나물(300g)을 128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노브랜드' 진열대. 연합뉴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자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장바구니 대표품목'을 더 싸게 선보이는 초저가 경쟁에 나섰다.

2일 유통업계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이마트는 초저가 가성비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를 통해 국산 콩나물(300g)을 1280원에 판매한다. 이는 시중 유사 콩나물 제품 대비 9%에서 최대 40%까지 저렴한 가격이다.

노브랜드 국산콩두부(300g·2개)는 시중 유명 제품 대비 37%가량 저렴한 3480원에 판매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 두부는 찌개·부침용 구분 없이 제일 공정 효율이 좋은 단일 상품"이라면서 "제조 비용을 줄이고 해당 업체의 콩나물 등 다른 상품도 함께 판매하는 윈-윈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작년부터 월 단위 가격 파격 행사와 분기별 가격 역주행 행사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부터 연 단위 할인 행사인 '고래잇 페스타'를 연간 5회 이상 추가로 진행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자체브랜드 '오늘좋은'과 '요리하다'를 앞세워 새해 '더 핫' 캠페인을 통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롯데마트의 '오늘 좋은 국산콩 콩나물'(500g)은 259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100% 국산콩만 선별해 제작한 고품질 상품으로 꼽힌다. '오늘 좋은 국산콩 두부 기획'(300g·2개)의 경우 3890원으로 찌개와 조림·부침 등 다양한 조리법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롯데마트 측은 전했다.

'더 핫' 캠페인은 매주 3개 품목을 초저가에 파는 '이번 주 핫프라이스'와 '이달의 핫 PB' '공구핫딜' '마이 핫프라이스'로 구성됐다.

마이 핫프라이스는 고객이 투표에 참여해 선정한 품목을 할인하는 소통형 프로모션이다. 롯데마트는 1월 쌀(10kg)과 즉석밥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투표 결과 이달 더 많은 표를 차지한 상품을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두부·콩나물·우유·라면 모두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대해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릴 계획이다.

자체 브랜드인 '심플러스 아삭한콩나물'(500g)은 연중 1000원에 '홈플러스시그니처 국산콩 두부'(300g·2개)는 3490원에 각각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또 연세우유·부산우유·제주축협 등과 우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심플러스 우유 3종'을 리뉴얼하고 락토프리 우유도 출시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 라면인 이춘삼(이것이 리얼 춘장 39.6%) 짜장라면과 이해봉(이것이 리얼 해물짬뽕) 짬뽕라면은 저가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1월까지 각각 1340만 개·309만 개가 팔렸다. 가격을 살펴보면 이춘삼 짜장라면(4개)은 2300원이고 이해봉 짬뽕라면(4개)은 2800원으로 각각 1개 기준 575원과 700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이춘삼' '이해봉'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PB 라면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